

칠레의 언어 정책

민원정 · 칠레가톨릭대학교 아시아프로그램 교수

1. 들어가기

칠레는 국가 구성원들의 인종과 언어가 동일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공식 언어가 없다. 모든 개인과 기관에서 스페인어가 공식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이는 칠레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데에 기인한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중남미 지역의 대부분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원주민이 살고 있던 중남미 대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가 정복자들의 언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이 시작된 180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 중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모두 인정하는 이중 언어 정책을 취한 나라는 파라과이뿐이다. 그러나 인디오들의 비율이 높은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다언어·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30년대 이후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1492년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

견"이라고 표기하는 나라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만남'이라고 표기하는 나라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중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인식한 국가들은 대부분 1492년을 '발견' 보다는 '만남'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원주민과 혼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원주민어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이들 국가의 역사 교과서에서 1492년은 신대륙 '발견'의 해다.

그러나 비록 소수지만 원주민 마푸체(Mapuche) 인디오들의 강력한 저항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칠레에서는 1993년 인디오법을 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다언어·다문화 교육을 해오고 있다. '세계화'가 유행이 되어 버린 요즘에는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300년 스페인 식민 지배와 독립 이후 200년간 지속된 유럽 이민, 토속 원주민들 그리고 혼혈의 역사가 칠레의 언어 사용 및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칠레 언어 정책이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피고자 한다.

2. 스페인어, 모국어 아닌 모국어

앞서 말했던 칠레에서 공식어로 인식되는 언어는 스페인어다. 언어 정책 수립 기관은 교육부와 문화부지만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 산하의 칠레 언어 아카데미(Academia Chilena de la Lengua)가 칠레 스페인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다.

스페인 한림원은 1713년 설립되어 1714년 당시 국왕 펠리페 5세의 승인을 받았고 '카스티야어 고유의 특색과 우아함,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스페인어가 아닌 카스티야어로 표기하는 것은 스페인이 각 지역의 고유어를 인정하는 지역별 이중 언어 정책을 표방하며 이 중 카스티야 지방의 언어인 카스티야어를 1492년 이후 국가 공식어로 채택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스페인 한림원 산하의 스페인어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현재 중남미 21개국과 필리핀¹⁾에 스페인어 아카데미가 있고, 사전, 문법, 철자 등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 모두가 동등한 역할을 한다. 스페인어 아카데미 연합회는 매년 회의를 통해 상호 교류하여 모두를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스페인 한림원은 ‘이것만이 진짜 스페인어다’라고 정한 바가 없고 방언의 개념 또한 없다. 각 지역의 다양한 스페인어를 모두 인정하되, 단 각 지역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권장한다. 1916년부터는 스페인 출신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사망일인 4월 23일을 ‘언어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는 동일한 철자법을 사용한다.

칠레 스페인어 아카데미는 1885년 중남미에서 8번째로 설립되었다. 1976년 칠레 스페인어 사전을 처음으로 출판한 이래 2001년 칠레 스페인어 사용 사전, 그리고 독립 200주년이 되는 올 2010년에는 칠레 스페인어 사용 사전 개정판을 출판했다.

칠레는 1844년부터 1927년까지 안드레스 베요²⁾가 제시한 바에 기준한 고유의 철자 규칙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h/ 소리를 ‘x’와 ‘j’ 중 ‘j’로 통일하고 모든 /l/ 소리를 내는 ‘y’는 ‘i’로 표기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1927년부터 칠레 정부는 모든 철자 규칙을 스페인 한림원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Sáez, Tassara, Valencia(1996)는 칠레의 전통적인 언어 교육에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 왔다고 지적한다:

-
- 1) 필리핀은 1571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에도 스페인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 2) 안드레스 베요(Andrés Bello)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1829년 칠레로 건너온 이후 중남미 최고의 인문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하원 의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칠레 헌법을 작성하였으며 1842년 칠레대학교를 설립했다.

1. 문법과 학술적 사전만이 언어 교육에서 유일한 권위를 지닌다;
2. 최고의 스페인어는 스페인식 스페인어다;
3. 칠레 스페인어는 페루나 콜롬비아보다 못하다;
4. 좋은 언어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5. 스페인어는 말하는 대로 적는다;
6. 스페인어 교사는 잘 말하고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기타 과목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법과 쓰기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말하기와 어휘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칠레 스페인어의 특성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교육부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바른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3. 원주민어, 부정에서 보이지 않는 배척으로

칠레가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 원주민 인디오는 국가 구성원의 개념에서 완전히 배척되었다. 원주민어도 당연히 무시되었다. 칠레는 북쪽에 아이마라 인디오, 사막 지역의 아타카마 인디오, 남쪽의 마푸체 인디오들이 존재하는 엄연한 다문화·다언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의 유럽을 꿈꾸는 백인 지도자들의 정책에서 원주민 인디오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마푸체 인디오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칠레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칠레 정부는 1993년 인디오법(19253조)을 제정하여 국가 내 인디오들의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원주민 인디오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마푸체어와 케추아어를 가르친다. 교육부는 원주민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정한 바 없으나, 최소한 원주민어 전파를 위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다. FEIB(다문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가

그것인데, 초등 교육에서부터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인종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이 PEIB의 목적이다. 1996년부터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과정 중 지역 대학들의 지원을 받아 실험적으로 다중 언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집에서만 사용하는 원주민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PEIB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PO (Programa Origenes 뿌리 프로그램)를 마련해 162개 학교에서 다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원주민 아이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 원주민어를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PEIB의 시행 배경이, 마푸체 인디오를 제외한 원주민들은 이미 고유의 언어를 많이 상실했고, 마푸체 인디오들도 칠레인이 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아이들은 칠레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이 백인이나 혼혈인 칠레 사회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 갈등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원주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다언어 교육이 단순히 이들을 칠레인화하기 위한 것인지, 여타 칠레인들에게도 다문화를 인정하도록 함께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PEIB 시행 또한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것이다.

4 영어는 세계화 시대의 필수품, 중국어는 보너스

약 10여 년 전까지 칠레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재량에 따라 영어와 프랑스어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립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립 학교의 경우 프랑스어를 선호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교육부는 학교 재량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리고 요즘은 2학년부턴 영어를 가르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나 시간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대학 입학 시험

에서도 영어는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은 영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졸업 자격을 준다.

한편 중국 붐을 타고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09년 칠레가톨릭대학교와 산토토마스대학교가 공자학당을 설립했고 교육부도 각 초·중·고등학교에 중국어를 가르칠 것을 권장하여 현재 15개 학교, 1350명의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5. 나가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언어·다문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를 부정해 왔던 칠레의 딜레마는 언어 정책에도 나타난다. 헌법이 정한 공식 언어는 없지만 모두가 스페인어를 공식어로 인정하고 있고, 원주민 인디오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인디오어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없다. 식민 시대를 겪었으나 스페인은 정복자가 아닌 뿌리로 인식되고 있어 언어 정책 수립은 교육부와 문화부에서 담당하지만 관리와 감독은 스페인 한림원 부속 기관인 칠레 언어 아카데미가 맡고 있다.

스페인어는 지역별 이중 언어를 인정하고 있어 스페인 내에서도 스페인어인가 카스티야어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스페인어가 중남미 대륙에 건너와 진화하면서 스페인어는 더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국가 및 한 국가 내 지역과 사회 계층에 따라 어휘와 동사 활용, 억양 및 액센트가 다르다. 따라서 스페인 한림원은 지역에 따른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페인어 아카데미 연합회를 통해 스페인어 고유의 특색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칠레 스페인어에는 칠레에 오래 거주한 한 미국인이 칠레 스페인어를 ‘칠레 정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이 있다. 스페인 사람들도 칠레의 이 언어 정글에서 헤매기 일쑤다. 칠레는 스페인 한림원이

정한 철자 규칙을 지키는 동시에 칠레식 스페인어의 특색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칠레 곳곳의 여러 지명이 원주민 인디오어로 되어 있으나 인디오어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록 강요는 아닐지라도 PEIB를 권장함으로써 원주민 후손들이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원주민어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화 붐을 타고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언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러 거부하고자 해도 이미 존재하는 언어를 부정할 수 없고, 억지로 강요하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언어 정책이다.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틀 안의 다문화·다언어, 그리고 국가 내의 다문화·다언어 문제는 오늘날 비단 칠레만의 당면 과제가 아닐 것이다. 모국어 아닌 모국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면서 뿌리 아닌 뿌리 원주민 인디오를 인정하고 제2외국어 교육을 통해 세계화를 대비하는 칠레의 언어 정책은, 비록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와 차이가 있을지언정,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언어 정책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조태린(2010),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제20권 2호, 117-131.

홍민표(2010), 일본의 언어 정책, 《새국어생활》 제20권 3호, 141-148.

Saez, I., Tassara, G., Valencia A. (1996), La enseñanza del español en Chile. En actas de congreso: el pluralismo lingüístico, la educación y el desarrollo nacional. Santiago de Chile: Soc. Chilena de Lingüística.

Blog de Lengua Española de Alberto Bustos, La ortografía chilena

